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9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9년 9월 2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9/4(수) 일진 잡으러 금속노조가 모인다!



일진, 집중 실무교섭 아직도 의견차이 크다

일진그룹의 노조파괴 사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집중 실무교섭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8/19(월)부터 매주 월수금 실무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일진그룹은 실무교섭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면파업이 두 달을 넘기는 상황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는커녕 계속해서 무의미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어설픈 줄다리기를 할 때가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일진그룹의 잘못된 상황판단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일진그룹에 금속노조가 모인다!

9/4(수) 일진그룹 본사 앞에 금속노조 간부들이 모인다. 전면파업 71일째를 맞는 날로, 일진지회의 투쟁이 길어지면서 금속노조 차원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인다. 그동안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과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의 연대가 모여서 투쟁을 이끌어왔다. 금속노조 차

원에서 다양한 연대도 이어졌지만, 직접적인 투쟁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일진그룹에 수차례 경고했다. 일진그룹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파괴 야욕을 버리지 못하면, 전국 18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것을 경고했다. 일진그룹은 이 경고를 가볍게 넘겼다. 이제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투쟁은 명실상부하게 금속노조의 전국적인 투쟁이 됐다.

더 이상 시간끌어도 소용없다!

일진그룹은 시간을 끌수록 지회의 조직력이 약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 반대다. 회사가 이렇게 나올수록 조합원들의 분노만 커진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조업하게 됐을 때, 회사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 해결해야, 이후에 원만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회사가 조합원들을 지금처럼 적대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조직력은 강해진다. 일진그룹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전면 파업 이후의 회사 운영까지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